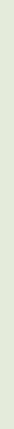
2022 2022.05.04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16)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1 Corinthians 3:16)

Contents

HIS Message	04
Devotion	07
HIS Spotlight	10
General News	15
ES News	18
MHS News	2
Library News	23
Nurse's Corner	29

HIS Message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New Pattern of Life Discerning God's Will

By 김경란 | 생활관장 Ms. Kyeong-Lan Kim · Dormitory Director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휴먼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의 큰 물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이세대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새로운 삶의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코로나 시기에 기독교계에서는 예배의 방식에 대하여 학계에서부터 교회에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방법적 차원을 놓고 과거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관하여 고민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예배의 방식보다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올해 우리 학교의 주제 성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12:2)입니다. 삶의 방식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이때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신실하게 질문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묵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서6:8)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과 기쁨과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의 주제 성구인 로마서12:2에서 도전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미가서6:8에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We are now in the Post-COVID, Post-Human era. Amid the great stream of changes, Christians ought to be able to discern this generation and prepare a new pattern of life according to God's will. During COVID-19, the Christian community has had numerous discussions, from academia to the church, regarding the way of worship. It was a time of concern with the method of face-to-face and non face-to-face on how to worship God.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matter that should precede discussing how we should worship. It is about discerning "God's perfect will".

Timely, this year's scripture of our school is;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At a time when patterns of life change rapidly, what matters more than speed is direction. We must faithfully question and discern God's perfect will, in order to set the right direction for us to move forward. We can meditate upon the following verses when seeking God's will. "He has shown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Micah 6:8). By this verse, we can see what God's goodness, joy, and wholeness are.

Regarding the perfect will of God, challenged to seek in this year's scripture (Romans 12:2), Micah 6:8 gives us direction to it. It is God's perfect will to practice justice with God in our daily lives and to enjoy showing mercy to others. A renewed life that discerns God's will allows justice to flow like water in each area of our lives and justice to flow like a river that does not dry up (Amos 5:24).

실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은 우리 삶의 각 영역에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아모스5:24)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한동 캠퍼스에서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땅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꿈꾸어봅니다.

5월의 첫째 주입니다. 생활관 학생들은 완화된 방역지침에 감사하며 벚꽃 얼굴빛으로 봄 방학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평화로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한동 캠퍼스는 생명의 봄비로 푸르르고 새들은 노래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HIS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끝까지 이 세대를 본 받지 않는 정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새 시대 새 생활을 맞이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I dream of God's justice flowing like a river in the Handong Campus and reviving as the springs of water that never dries.

This is the first week of May. Dormitory students expect Spring Break with faces like cherry blossoms, grateful of the relieved quarantine guidelines. It is a blessing to be able to keep our daily lives in peace. The Handong Campus is lively with the spring rain of life and birds singing. I pray that on this beautiful day of spring, all members of HIS community form a new pattern of life in the new season and discern God's perfect will by justice, until the end.

Devotion

경건을 위한 영적훈련

Train Yourself to Be Godly

By 정상우 | 중고등 성경교사 Mr. Sangwoo Jung · MHS Bible Teacher 이번 달은 경건해지기 위한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경건해지기 위해 너 자신을 훈련하라.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함을 위한 훈련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삶과 죽고 나서의 영생의 삶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4:7-8). 우리가 신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잘 붙어있거나 쓰임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영적 훈련의 세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여러분의 영적 멘토로 부터 배우세요. 영적 멘토는 여러분의 부모님, 학교 선생님, 교회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이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들로부터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본인이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스승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스승 혹은 멘토들이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분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여러분의 언어생활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나요? 혹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나요? 우리 중에 언어에 대해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주눅 들게 하시지 않고, 대신 우리에게 This month, I do want to talk about how we can train ourselves for godliness.

Apostle Paul said to Timothy that "Train yourself to be godly. Physical training is good, but training for godliness is much better, promising benefits in this life and in the life to come" (1 Timothy 4:7-8). Just like we do workout for our physical fitness, we do need to do training for our spiritual fitness. If you are not stable and strong spiritually, it would be hard for you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be used by God. So, here I would like to give you three ways to train yourself to be godly.

Number 1. Learn from your mentors. Mentors can be your parents, teachers, pastors, deacons, or elders of your church. Learn from them how to pray, how to love God and our neighbors, and how to live as the followers of Jesus Christ. God uses people to train us. Jesus regularly took his disciples to a mountainside to teach them how to pray. Also, if you read Matthew chapters 5-7, you will see Jesus giving a sermon to his disciples on the mountainside. For the first disciples, Jesus himself is their mentor. Just like the disciples, we all need mentors. Even though our mentors might not be perfect like Jesus, we can still learn so many good things from our mentors. Again, learn from them how to live as the followers of Jesus Christ.

능력과 사랑과 자기 절제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7). 이러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조절하고, 조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따르면, "경건한 자는 말을 하기 전에 곰곰히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있어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세워주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와 진심어린 충고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재능이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찾는 훈련을 하십시요. 찾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는 교회 사역이나 학교 동아리,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의 기회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기여가 당장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며 결국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사용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위의 세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Number 2. Learn to control your tongue.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hurt by somebody's words? Or Have you hurt somebody with your words? I know we all made mistakes in speaking or writing. But we can chang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aul said to Timothy that "For the Spirit God gave us does not make us timid, but gives us power, love and self-discipline (or self-control)." With the help of the Spirit of God, we can control our tongue. Proverbs 15:28 says, "The heart of the godly thinks carefully before speaking." Since we are godly people, we should think carefully before speaking. That way, we can reduce the chance of our mistakes. Furthermore, we can speak life to the people around us. The fact that we are created in God' image tells us that our words have power. They don't create something as God's words did, but we can save or kill somebody with our words. In accordance with God's design for us, we are to use the power for good. Let's bless each other. You can save a person with your encouragement, comfort, and heartful correction.

Number 3. Learn to use your gift.

Everyone is gifted. God is the Giver of gifts. Your gift can be small but God can use you with your gift for his kingdom and glory. To use your gifts, find out what your gifts are first. And then, look for any church ministry, school club, or public service that you can contribute to. Your contribution doesn't have to be huge. The point of this process is that you will be becoming more joyful and spiritually mature as you start being involved in those ministries or services.





Ms. Jinsol Kim 김진솔 선생님

부족한 저를 한동글로벌학교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언어와 문화를 아울러 이해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알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며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9A HR, MHS English Teacher 9A 담임, 중고등 영어 교사

I thank God for guiding me to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I am moving forward with a vision for an educational mission. Beyond simply teaching language, I would like to guide students to understand language and culture in faith so that they can know God's greater love for the world. For this to be done, I want to fulfill my responsibilities honestly and sincerely before God and also before other people. I also pray and hope that I will perform and handle my duties well with the wisdom and love God gives me.

Soli Deo Gloria!

Q. 자라온 배경과 HIS로 오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Q. Please share your background and how you came to HIS.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를 배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립학교를 다니다 부모님이 홈스쿨링에 대해서 나눠주시며 저와 제 동생들에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셨고, 어렸던지라 학교를 안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좋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홈스쿨링을 시작 후 학교 친구들이나 학원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고 다른 친구들이 쉽게 가고 놀수 있는 것을 왜 난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로움은 커져갔고 처치스쿨 선생님들께 말썽을 부려 혼날 때마다 제 안에 반항심도 커져갔습니다. 그 때는 무엇보다 왜 하필이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일반 학교를 가서 일반 친구들을 만나

I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and learned the Bible and prayers since I was young, but I didn't know who God was and I didn't experience it. I went to public school until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My parents shared with us about homeschooling and asked me and my younger brother and sister if they wanted to do it, and I started it because I thought I just didn't have to go to school because I was young. However, after starting homeschooling, it was difficult to hang out with my school friends or Hakwon friends, and I often wondered why I couldn't do what other friends could easily do. As time passed by, loneliness grew, and whenever I was called out or scolded by the teachers of the church school, the bitterness inside

평범하게 영화관도 가고, 노래방에도 가며, 시내에 나가서 노는 등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울퉁불퉁 거친 시기를 지나던 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같은 해 교회에서 열리던 집회에 참석해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부모님의 옆에 앉아 들리지 않는 말씀을 멍하니 앉아 습관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앞으로 나와 기도하자고 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엉거주춤 나와 어설프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때 목사님께서 "모든 힘든,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하시며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날 갑자기 저도 힘든 것을 놓고 기도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그맣게 소리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여서 외로웠던 시간들, 공부가 힘들어서 포기하고픈 마음에 좌절했던 순간들, 어려운 선생님들과의 관계 등 9살이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점점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 만나주셨다는 확신이 들면서 그 날 그렇게 몇 시간을 집회가 끝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제 삶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던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지 않을까? 라며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이후 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더 낮추셨고 겸손케 하셨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넘어지는 게으름, 교만, 이기심, 두려움 등 죄의 영역들도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와서도 하나님은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는 동시에 교만이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한가지 확실했던것은 제가 자라온 교육환경이 절대 우연이 아님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비전은 교육선교사였습니다. 어느 교육현장을 가던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최선을 다해 사명감 가지고

grew. That was the time when I was most dissatisfied with why I was born into this family, go to a regular school, meet ordinary friends, go to a movie theater, go to karaoke, go out to play in the city, etc. After such a rough time, God came to me. In the same year, I attended an evening service held in my church and sat next to my parents as usual, blankly listening to what I couldn't really understand. After the sermon, as the pastor asked everyone to come forward and pray, I came forward and sat down awkwardly. At that time, the pastor said, "God knows all the hard, heavy hearts. Call out His name!" and prayer began, and on that day, I suddenly felt like I should pray for something that I struggle with. So I slowly began to pray. I was 9 years old when I was lonely because I was alone, when I was frustrated because I wanted to give up or I had a hard time studying, and my relationship with difficult teachers, but God was listening to my prayers at that time. Gradually, I cried and prayed and repented, and God made me realize how sinful I was. I spent hours praying till the end of the service that day, convinced that God had met me.

After that, will God be pleased with me if I say this and do that? That's what I kept asking myself. Wouldn't I sin and break God's heart again? I asked God and tried to be disciplined by praying. The training continued in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for further study. Whenever I faced new challenges and difficulties, God lowered me and humbled me. Of course, there were areas of sin, such as laziness, pride, selfishness, and fear, that kept me from God. Even when I came to Handong University, God gave me the joy of learning, but also made me realize that pride is a heavy sin. Also, one thing that was certain in many moments of experiencing God was tha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 grew up in was never a coincidence and God's plan for me. So my vision has been an educational missionary since I was young. Wherever I went to the educational field, I wanted to do my best to serve God with a sense of mission. Of course,

섬기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물론 잦은 실수가 있을까 혹은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 되지 못할까 두려워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HIS라는 귀한 교육현장과 공동체에 계획한대로 온 것이 아니지만 어떤 선택을 하던 하나님이 주관하시리라 믿고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도하는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니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속 되리라 믿습니다.

there were times when I was afraid of making frequent mistakes or not being a good teacher. I didn't come as planned to this wonderful educational field and community of HIS, but I took the opportunity because I believed that God would be in charge of whatever choice I made. I believe that God's amazing plan will continue on because he leads as we pray.

Q.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요?

Q. What kind of work do you do and what do you expect through it?

저는 현재 9A 담임교사와 중등영어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글쓰기, 읽기, 등 언어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글을 쓰는 작가나 가사를 적는 작사가 등 다양한 직업을 소망했었습니다. 또한 교육선교나 다음세대 교육을 생각했을 때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분야는 언어쪽이겠다라고 생각하며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바 기대하는 바는 학생들이 글쓰기 창작활동이나 책 읽기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 세상의 언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듯 하나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언어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적 가치 등 또한 피상적인 단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단계로 해석하고 알아가는 지혜와 통찰력을 함께 배우길 기대합니다.

I am currently serving as a 9A homeroom teacher and a middle school English teacher. Since I was young, I liked all activities related to language such as writing, reading, etc. So I've wanted to have various jobs, such as a writer or a lyricist. Also, I became interested in English education because I thought that language would be the specific field that I can serve when I think about education missionary work or next generation education. What I expect from this role is that when students study with various topics such as writing and creative activities or reading books, they look at the world with the eyes of faith and use the language of the world as a tool of God through biblical values. It seems exaggerated, but it's actually one thing that I want to emphasize. I want to be able to look at the world with God's eyes and God's heart and express it in the language we learn. I look forward to learning the wisdom and insights of interpret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s a deep step, not as a superficial step, such as its unique culture and historical value.

Q.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나눠주세요.

Q.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16-21)

학교를 위한 제 기도이기도 하며 제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처음 사랑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욱 더 깊어지고 굳어져서 성령님의 능력이 저희 개개인에게 거하길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항상 함께하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과 이웃에게도 같은 사랑을 흘러보낼수 있는 HIS와 모든 식구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I pray that out of his glorious riches he may strengthen you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And I pray that you, being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 may have power, together with all the Lord's holy people,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and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that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according to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 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throughout all generations, for ever and ever! Amen. (Ephesians 3:16-21)

It's my prayer for school and also for myself, my family and my church. I pray that our first love will not stop just by experiencing it, but that it will be deepened and solidified, so that the Holy Spirit's ability will reside in each of us. I hope and pray for those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values of the world in the Bible and follow God, that they will always love God deeply and flow out the same love to our neighbors as God will be with us until the end.



General News

대구 계성고 방문

Daegu Keisung High School Visits HIS

교직원 안전교육

Staff Safety Education

신임교직원

New Faculty & Staff

대구 계성 고등학교 방문

Daegu Keisung High School Visits HIS



1906년에 설립된 기독교 사립학교인 대구 계성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교목님 등 여덟분의 선생님들께서 본교의 교육과정 및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을 알아보고자 방문해주셨습니다.

The vice principal, the chaplain, and 8 other teachers from Daegu Keisung High School, a Christian private school established in 1906, visited HIS to learn about our school's curriculum and various activities.

교직원 안전교육

Staff Safety Education



5월 2일(월), 교직원들은 채플실에서 Timothy Northe 선생님으로부터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On May 2nd (Monday), HIS faculty and staff had a safety training session at HIS chapel in which Mr. Timothy Northe instructed how to react to various types of disaster.

신임교직원 New Faculty & Staff



유아영재학 석사 Master of Science in Early Childhood Gifted Children

전공

경력

어린이 도서관 및 문화강좌 그림책 강사, 유아영재창의교실 운영 Children's Library and Culture Lectures Picture Book Teacher, Early Childhood Gifted Children Class Manager

유영신 Ms. Youngshin Yoo 초등 교무, 입학 ES Administrations. **Admissions**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를 다녀오시는 김지은 선생님을 대신하여 초등 교무와 입학을 맡게 된 유영신입니다. 한동글로벌학교의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업무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ello! I will be working in Ms. Jieun Kim's place during her maternity leave. I will do my best in work while praying that HIS students may grow well in Christ.



전공 경북대 식품영양학과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ood and Nutrition

경력

신세계푸드 급식 18년차 18 years in Shinsegae Food Co., School Meals

박소윤 Ms. Soyoon Park 식당 매니저 (신세계푸드) **School Nutritionist** (from Shinsegae Food) 한동글로벌학교에서 은혜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준비하는 가족 같은 영양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It is an honor to get to meet HIS students by God's grace. I will always do my best to prepare healthy and delicious meals and be like family to students.

ES News

제 9회 창작 미술 대회

9th Annual Creative Art Contest

스포츠 데이

Sports Day

By 박에스더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제 9회 창작 미술 대회

9th Annual Creative Art Contest









5월 3일, 초등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손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9회 창작 미술 대회의 주제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학생들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십자가, 부활, 기적과 가르침을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 묵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On May 3, elementary students had a day to be creative by drawing and making things with their hands. The theme for the 9th annual Creative Art Contest was "the life of Jesus". Students expressed Jesus' birth, death, cross, resurrection, miracles, and teaching through their artwork. Many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love of Jesus that He displayed throughout His lifetime.

스포츠 데이

Sports Day

체육대회를 하기에 아주 뜨겁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레이팀과 블루팀으로 나뉘어서 팀게임을 하고 또한 풋살, 피구, 농구, 핸드볼과 같은 스포츠 경기를 하였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한 물풍선 싸움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학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한 체육대회였습니다.

It was a nice hot day for Sports Day! Elementary students enjoyed many team games, Gray versus Blue, as well as sports competition such as futsal, dodgeball, basketball, and handball. The highlight of the day was the water balloon fight to cool off the heat. We were especially thankful for being able to invite parents this year.















MHS News

SKAC 중등 농구 대회

SKAC MS Basketball Tournament

By Mr. Tim Northe

7B Homeroom, MHS P.E., Math, Social Studies Teacher













SKAC 중등 농구 대회

SKAC MS Basketball Tournament 우리 학교는 2022년 첫 SKAC 중학교 농구 대회를 주최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중학교 농구 토너먼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다른 다섯 학교와 함께 남녀 각각 A와 B팀으로 구성된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감사하게도 무탈하게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하였습니다. 5월 13일에는 부산에서 중학교 농구 대회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HIS hosted the first SKAC MS basketball tournament for 2022. It is the first MS basketball tournament in 3 years. It was great to see so many students out playing and enjoying themselves. Five other schools joined us with both girls and boys teams and A and B divisions. Thankfully the weather was also great for the tournament which made the whole day a success. Thankfully there were no major injuries and everybody got home safely. We have one more MS tournament on May 13 in Busan which will be the finals.



인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는데요 반갑고 감사하고 미안한 것들 말예요 그 흔한 미학의 진심은 몇 미터나 될까요

거리마다 진심을 생각하며 걷는데 만나는 꽃들이 진심으로 반가운데 오월은, 진심이라는 시어로 가득한데

By 이희정

Greetings

It is called the most beautiful poem in the world The ones we greet and thank and are sorry How long is the sincerity of these common esthetics

The paths taken are meant for sincerity The flowers are sincerely grateful to meet May is, full of poetic diction called sincerity

By Hee Jung Lee





어쩌면 감사의 인사로 충만한 달이기도 하지요. '진심'이 다한 곳에 무엇이 있을지 '인사'가 오간 후에 누가 남을까요? 누구에게든 진심을 다해 드리는 인사는 예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의 선물이 되겠지요.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듯한 청신한 봄의 얼굴로 우리 도서관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 '신간도서'들과 인사 나눠 보아요! It is a month full of greetings of thankfulness. Who will be left after 'greetings' come and go where 'sincerity' is done? A sincere greeting to anyone will be a gift of the good heart of Jesus.

Share your greetings with the special guests; 'new books' who came to our library with a fresh face of spring that seems as if it has just washed its face with cold water!

봄 손님 1 · 시공주니어, 칼데콧 아너 상 수상작품 30권

Spring Guest 1 • Shigong Junior, Caldecott Arner Award Winner 30 books



시공주니어의 칼데콧 아너상 수상 작품집을 만나 봅니다, 전세계 좋은 그림책으로만 구성된 창작동화이지요,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단 한 권의 책에만 수상하는 상입니다. 독특한 화풍, 기법, 생각 등으로 표현된 개성이 강한 그림책이며, 예술 작품의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통해 상상력과 생각을 높여주는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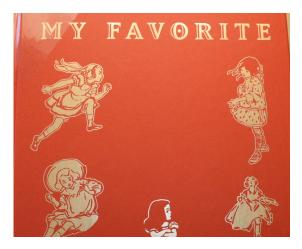
We meet the Caldecott Arner Award-winning collection of poetry, a creative fairy tale consisting of selected picture books from around the world, an award for the one book that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onsiders the best. It is a unique picture book expressed in unique paintings, techniques, thoughts, etc., and a book that enhances imagination and thought through various themes and contents of the work of art!

봄 손님 2 • 이상한 책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앨리스 증후군' '앨리스 비즈니스'라고 불리며 주인공과 캐릭터들을 매번 다르게 변주한 그림책과 상품이 나오는 유일무이한 동화이지요. 이 그림책을 통하여 우리는 150여 년간 일러스트의 역사를 관통해보고 한정판, 보급판, 팝업북 등 다양한 형태의 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자체로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한 번즘 도전해 보고 싶은 모험의 원더랜드입니다.



"Alice in Wonderland" is called "Alice Syndrome" and "Alice Business", and it is the only fairy tale that stars different variations of picture books and goods on the main character and other characters in each book. Through this picture book, we can explore the history of illustration for more than 150 years and meet various forms of books, such as limited editions, popular editions, and pop-up books. This book is in itself a wonderland of adventure that many illustrators would want to take at least once in their 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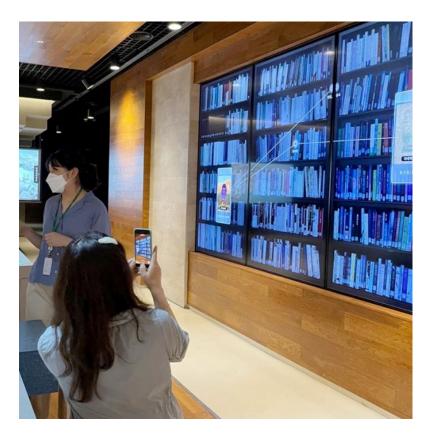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관 실감 서재** 둘러보기

National Central Library, Digital Museum Realistic Study Tour





지난 여름 방학,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을 다녀왔는데요, 미래도서관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디지털관의 실감 서재의 특별히 인상깊은 체험을 공유해 드립니다. 연휴를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도 한 번 다녀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 수장고 영상

미래 수장고 모습을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형 화면에서 압도감 있게 전달합니다.

02 VR도서관

VR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가상 공간을 골라 그 안에서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든 VR 프로그램입니다. 실제와 같은 공간 속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독서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03 검색의 미래

미래 도서관 수장고의 모습과 자료 검색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 자료를 보다 시각적이고 역동적으로 검색하고 다른 관람객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차세대 도서관 검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Last summer, I went to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which represents our country, and had a particularly impressive experience of the library of the Digital Museum, which embodies the appearance of the future library. It would be nice to have our students visit once over the holidays.

O1 Storage compartment VideoIt presents the future of a storage compartment in 3D technique on a large screen.

02 VR Library

VR virtual reality is a VR program created to choose the virtual space I want through the device and read books or listen to audiobooks in it. In a real-life space, you can experience a new reading type that you have never felt before.

03 The Future of Searching

This is a space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future of the future library storage compartment and the future of searching materials.

You may experience the next generation of library searching that allows you to search library materials more visually and dynamically, share and collaborate with other visitors.



2022 독서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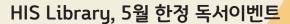


친필사인 시집본과 함께하는 5월 독서이벤트

나도 북튜버!

May Reading Challenge with Autographed Collective Poems Ima

BookTuber!



행사기간: 5.1 - 5.30

매일 선착순- 10명, 책갈피 및 레모나 서평 및 북튜브 영상 - 10명, 사인본 시집 증정 한 줄 감상평 쓰기-30명, 문구류 증정

운영방법 : 경북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출 도서 서평 작성시 기록 인정

문의사항: 도서관 이희정

heejunglee@his.sc.kr / 054-260-1742

HIS Library Reading Event (Only in May)

Event period: 5.1 - 5.30

Daily first - come, first-served-10 people, bookmarks and Lemona

Book Review & Book Tube video - 10 students, autographed poetry collection book

One Line Review-30 students, stationery gift reward

How to apply: Gyeongbuk Reading Education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Submit a book review of the book you have loaned at the homepage

Contact: Librarian Hee Jung Lee,

heejunglee@his.sc.kr / 054-260-1742

서평등록 · Apply Book Review https://bit.ly/3s3aIKb

2022 Reading Challenge

Nurse's Corner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World No-Tobacco Day, May 31st

청소년 흡연

Youth Smoking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매년 5월 31일은 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 (World No Tobacco Day)입니다. 흡연의 피해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건강한 습관을 길러봅시다.

May 31st is the World No Tobacco Day, named by WHO. Let's look into the severity of the damage of smoking and make a healthy habit.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

Problem of youth smoking

- 담배의 일산화탄소 때문에 뇌가 만성 저산소증이 되어 학습능력이 떨어짐.
- Learning ability decline due to carbon monoxide from smoke, which makes the brain in chronic hypoxia.
- 청소년기의 흡연 시작은 성인에서의 시작보다 니코틴 중독증에 더 깊이 빠지게 되어 더 끊기 어려워짐.
- In comparison with an adult, youth smoking causes more deep nicotine addiction that makes it more difficult to quit.
- 잦은 기침과 가래가 생기며 호흡기질환에 쉽게 이환됨.
- Frequent coughing and sputum occurs and can easily develop a respiratory disease.
- 입에서 악취가 남. (가글, 양치질로 없어지지 않음)
- Bad breath that doesn't wash out by gargling or brushing teeth.

담배 연기 속엔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을까요?

What kind of chemical substances are in cigarette smoke?

- * 4000여종의 화학물질 중 대표 유해 성분
- * Namely harmful ingredients in 4000 types of chemical substances
- 니코틴: 강한 중독, 혈관 수축
- Nicotine: strongly addictive, contracts blood vessels
- 타르 : 암을 일으키는 담뱃진
- Tar: causes cancer
- 일산화탄소 : 산소부족, 뇌기능저하
- Carbon monoxide: lack of oxygen, degrades brain function
- 그 외 : 비소(독가스), 아세톤(매니큐어 지우기), 다이옥신(환경호르몬), 포르말린(방부제) 성분
- Other ingredients: Arsenic(poison gas), Acetone(used for erasing manicure),

Dioxin(environmental hormone), Formalin (preservative).

흡연욕구에 대처하는 5D 전략

5D Strategy for handling smoking desire

Delay 참기

시계를 보며 1분 동안 참기 Refrain for 1 min while looking at the clock

Deep breathing ^{심호흡}

심호흡을 천천히 10회하기 Slowly take a deep breath 10 times

Drink water 물 마시기

물을 1-2컵 마시기 Slowly take a deep breath 10 times

Do something else 취미활동

취미활동하기 Try other activities

Declare 선언

스스로에게 금연을 선언하기 Proclaim to quit smoking to yourself



https://bit.ly/3v2RN43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 바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

